

# 광주 청년창업 7명 중 1명 빛 못갠다

### 산업기반 열악·내수 부진 탓...2년차 대위변제율 13.5% 광주신보 "창업 생존율 전국 최하위...기업 생태계 빈약"

빛을 내 창업한 광주지역 청년 자영업자 7명 중 1명은 2년간 사업을 했는데도 빚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산업기반과 내수 부진의 이종고 탓에 이들이 '빚수렁'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재단 보증공급액은 4144억원(1만7862건)으로, 연 4000억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신보 보증공급액은 2017년 3568억원(1만7976건), 2018년 3629억원(1만6991건) 등으로 최근 3년새 22%(749억) 급증했다.

광주신보와 6개 은행이 협력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 880

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부터 광주신보 문을 두드린 청년창업자는 3886명에 달한다.

광주신보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만 39세 이하 청년 인재가 창업할 수 있도록 최고 5000만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공급이 늘어나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청년 자영업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광주신보의 최근 4년간(2016-2019년) 평균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6%로 나타났다.

전국 기업 평균 은행대출금 연체율(0.7%·2019년 10월 기준)의 11배 수준이다. 지난 2016년 광주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 대위변제율은 13.5%에 달했다.

신보 측은 "통상 연체 등 보증사고는 보증취급 2년 이후부터 발생하므로 2016년의 보증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광주지역 청년창업자 대출금 연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광주 신규사업자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과 창업 5년 이후 기업생존율이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7%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4년 생존율(30.6%), 5년 생존율(25.2%)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신보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후 관리 필요성을 지적 받은 뒤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6명에게 총 9100만원 규모 분할상환약정 기회를 줬다.

광주신보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

## 기아차 임금협약 타결

### 노사 오늘 조인식

#### 노조 2차 합의안 59% 가결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9 임금협약'을 타결했다. 조인식은 20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한다.

19일 기아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총원 2만9281명 중 2만7923명이 참여해 이 중 59.4%인 1만6575명이 찬성했다. 재적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임협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 $\alpha$ 로,  $\alpha$ 는 근무형태와 연계한 잔업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공동전담팀(TFT) 구성, 공동TFT에서 생산물량 만회 및 임금보전 관련 개선방안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 출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10일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급 150만+320만원(전통 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1만5159명)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는 이후 4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 15일 19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송중욱(왼쪽 세번째) 광주은행장은 지난 15일 '오픈뱅킹 사전예약 이벤트' 당첨자를 본점에 초청해 경품을 증정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오픈뱅킹 가입자 2만명 돌파

### 등록계좌 4만1790개 디지털뱅킹 접근성 인증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 50일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눈앞에 뒀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광주은행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1만9918명으로, 당행 등록계좌 수는 4만1790개로 집계됐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1월28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광주은행은 오픈뱅킹 등 수요를 잡기 위해 지난 달 디지털뱅킹을 대폭 개설했다. 이달 8일에는 국가품질인증기관 '원와치'로부터 스마트뱅킹과 모바일뱅킹, 본인인증 3개 부분의 '접근성 품질 인증'을 확

득하면서 비대면채널 모든 부문에 대한 '접근성 인증'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197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2222만 계좌를 등록했다.

전면 시행을 한 지난해 12월18-올해 1월8일 일평균 가입자 수(40만명)와 등록계좌 수(66만 계좌)가 시범 운영 기간(10월30일-12월17일, 6만명·16만 계좌)보다 각각 5.7배, 3.1배 늘었다.

현재 서비스 참여 기관은 48개(은행 17개·핀테크 사업자 7개·오픈 플랫폼 기관 24개)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2020 광주전남 경제리더에게 듣는다 김문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 “지역중기 글로벌 진출 적극 돕겠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기업 운영에 강한 자신감과 희망이 있을 때 긍정 효과가 경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올해는 중소기업 사기를 높이는 데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지난 17일 만난 김문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혁신 DNA”와 한번 해보자라는 ‘기업가 정신’이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중소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헤쳐왔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수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에 저출산까지 겹쳐 내수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출산 대비는 글로벌 밖에 없다. 수출 지원책을 적극 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전망을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12개월 연속 감소세였던 수출은 올해 초부터 상승 신호가 감지되고, 경제성장률도 나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전남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전망도 밝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소상공 자영업의 규모는 영세하지만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 데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술력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 인공지능(AI)·광융합 바이오헬스·에너지 분야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을



### 저성장 기조 내수로는 한계 수출지원책 적극 추진

### 중기 ‘디지털’ 체질 개선 제로페이 활성화 앞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디지털 구현’을 정책 우선순위로 정했다.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소상공 자영업은 스마트상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101개)보다 3배 많은 317개를 구축하고, 자영업은 AI와 IoT(사물인터넷), VR·AR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시범 점포와 상점가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A/S 센터’, ‘스마트 서비스’ 구축도 진행한다.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결제수단으로, 활성화되면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와 협력해 가맹점 확대와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굴·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가리면, 광주조청경제혁신센터 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을 꼽았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해 말 25년간의 농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동천동 시대’를 열었다. 농성동 옛터는 광주지역 창업불확산을 위한 ‘광주 스타트업 캠프’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는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기업을 사랑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업은 지역의 부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지역민들의 삶도 윤택해진다”면서 “기업을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워달라”고 당부했다.

/글·사진=박정욱 기자 jwpark@

##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3.2% 오른다

### 장기요양보험료도 10.25% ↑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각각 월 평균 3653원과 2204원으로,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3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 로또복권 (제894회)

| 당첨번호 |                    | 2등<br>보너스소자   |           |
|------|--------------------|---------------|-----------|
| 19   | 32 37 40 41 43     | 45            |           |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일치            | 2,377,935,959 | 9         |
| 2    | 5개 숫자 +<br>보너스소자일치 | 63,694,714    | 56        |
| 3    | 5개 숫자일치            | 1,530,204     | 2,331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116,749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1,971,982 |

**방치된 묘지 70%(추정)**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